

■ 'BBK 이명박 동영상' 공개...李 '특검법' 전격 수용

투표 이틀앞 대선 정국 '요동'

신당 "대역전 시작됐다" 한나라 "대세론 이상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2000년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에 16일 공개되면서 막판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정성진 국무장관에 대해 BBK 사건에 대한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이명박 후보가 이날 밤 전격적으로 'BBK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선 정국은 시계 제로의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날 BBK 동영상 파문으로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에 어느정도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BBK 동영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세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막판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BBK 동영상 파문이 현 대선 구도 자체를 바꾸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선 것도 BBK 의혹에 대해 뒷받침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흔들리는 표심의 풍요를 막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광운대 강연 동영상에서 이명박 후보가 말한 내용

은 김경준과의 동업관계에 있을 당시의 얘기일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검찰의 자금 추적 결과이며, 이 후보의 돈이 한푼도 BBK에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적 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선거 막바지에 '검찰 재수사 검토'를 지시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후보 지지층을 결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는 BBK 동영상 파문은 전체 대선 구도를 일거에 바

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벌써부터 신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고 있던 지지층의 결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양형일 광주선대위원장도 "수도권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보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며 "특히, 동영상 파문으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이탈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막판 대역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당 측에서는 BBK 동영상 파문

에 이어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세한다면 충분히 막판 대역전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기자와 만나 "박상천 대표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내일 아침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제 공은 유권자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유권자가 BBK 동영상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BBK 특검법' 통과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농성 중인 가운데 16일 국회 본청 정문에서 경찰이 국회로 진입하려는 한나라당 당원들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BBK 동영상'李 후보 발언 주요 내용

"제가 (2000년)1월에 설립했다 금감원 승인 맡는데 6개월 걸려"

예비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BBK 향후 전망 = 서두에 말씀드린 듯이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

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째부터 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뭐냐 저가 하는 금융회사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주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언론 인터뷰 관련 = 오늘 사실 MBC에서 인터뷰를 쫓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잘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 구조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인니까. 뭐 나가더라도 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자 신문에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냈습니다. 증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게 6개월 걸렸어요.

/연합뉴스

昌 분노 "경천동지할 내용...법 심판 받아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에 공개된 것과 관련, "드디어 경천동지할 내용이 드러난 것 아니냐"며 고무된 분위기다.

대선 막판 민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반전 카드'라는 점이라고 판단한 듯 후보부터 외곽 지지단체까지 나서 총공세를 퍼부었다. 캠프와 중앙선대위 대변인 명의의 논평도 10여 개나 쏟아냈다.

이회창 후보는 오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를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모독하고 우롱하며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온 나라를 혼

란으로 몰아넣는 '거짓의 국판'을 벌여왔다"며 "스스로의 입으로 무한책임을 강조한 이상 반드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진정한 정권교체는 '살박성창'(殺博成昌, 이명박 포기,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이명박 후보가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조용한 산사의 '속죄원'이 제격"이라는 강경 논평도 줄을 이었다.

이회창 후보 지지자 선연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측은 성명에서 "이명박 후보와 그 일당은 국민을 속여 국권을 탈취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곧 허위와 위계의 수단을 이용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국가전복기도에 대한 법정 형벌은 사형"이라고 명비난했다.

차 목록 특별한 언급없고 유세 일정 취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은 16일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육성 이 담긴 동영상 CD가 공개되자 막판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측은 공식적으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등 다소 복잡한 기류도 읽혀졌다.

한 측근 의원은 "이렇게 되면 특검법안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면서 "이 후보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면 왜 수용을 못 하는 것이냐. 수용 안 하는 게 웃기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의원은 "한나라당이 막다가 잘못되면 총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당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일이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동영상 공개가 대세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한 친박(親朴·친 박근혜) 의원은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후보가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사실과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동영상 공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그는 '이명박 특검법' 처리에 대비한 당 방침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이날 충북 지원유세 일정 및 17일의 부산,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신당-민주 후보단일화 최후 담판

BBK 투자자문을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특강 내용을 담은 동영상에 공개되면서 대선 막판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간에 '최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밤 자정까지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탈당 등을 포함한 중대 결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신당 측 정대철 선대위원장과 박상천 대표는 이날 밤 3차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 시내 모처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이 당에서 양측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후보단일화에 대해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인제-정동영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닷새째 국회 본관에서 단식중인 이상열 민주

당 의원(목포시)은 이날 밤까지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당을 포함한 중대 결단에 나서겠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상열 의원 측근 인사는 "이날까지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고 "후보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이 의원은 탈당 등 중대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동과 관련, "이미 민주당은 후보단일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날 다시 양측이 만난다 해도 특별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의 후보단일화가 끝내 결렬될 경우 이상열 의원의 탈당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최인기 의원과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발 등 민주당은 대선 이후 상당한 내용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드디어 12월 19일
대한민국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12월 19일, 대한민국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투표하러 나오세요. 투표하러 나오세요.

Made in Korea

■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차·보통선거

국회: 12월 19일(월) 14시 00분
지방선거: 12월 19일(월) 18시 00분
투표시간: 12월 19일(월) 06시 00분 ~ 18시 00분
투표장: 전국 각지 투표소
투표방법: 투표용지 투표
투표권: 만 18세 이상 국민
투표장: 전국 각지 투표소
투표방법: 투표용지 투표
투표권: 만 18세 이상 국민

투표함